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선정작 공개

본선 진출작 10편 선정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경쟁 부문 중 하나인 '한국경쟁'의 본선 진출작이 발표됐다. 지난 12일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주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열리는 제22회 영화제의 공식 경쟁 부문인 '한국경쟁' 부문 본선 진출작 10편이 선정됐다.

한국경쟁은 지난해 1월 이후 제작된 감독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장편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메인 경쟁 섹션이다.

올해 한국경쟁에는 108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먼저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은 정재익·서태수 감독의 극영화 '복지식당'과 류형석 감독의 다큐멘터리 '코리도라스', 변규리 감독의 다큐멘터리 '너에게 가는 길'이 눈에 띈다.

장애인 복지 제도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성 소수자와 그 부모의 이야기를 소재로 우리 사회에 유의미한 질문을 던진다.

여기에 한국 사회에 협조하는 여러 문제를 소재로 삼은 작품들도 최종 선정작에 이름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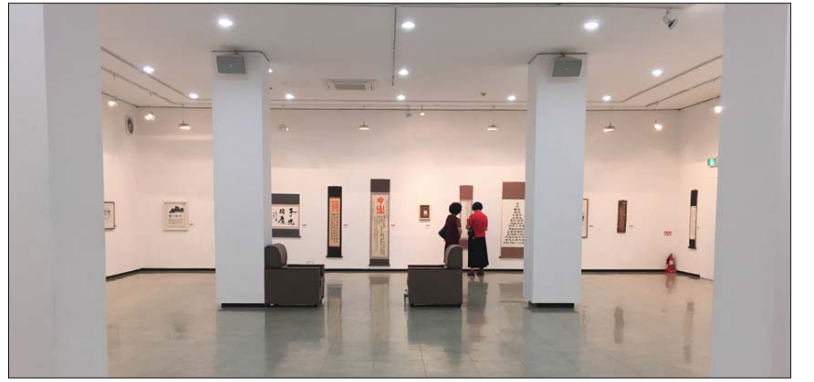
이정곤 감독 '낮아웃'

홀로죽의 삶을 반영한 홍성은 감독의 '혼자 사는 사람들'과 대한민국 평범한 여성 앞에 놓인 장벽을 소재로 한 허정재 감독의 '첫 번째 아이', 간호사 사회의 '태움'을 촘촘하게 그려낸 황준하 감독의 '인플루엔자', 산업재해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감정원 감독의 '희수'도 각각 선정됐다.

이정곤 감독의 '낮아웃', 우경희 감독의 '열

아홉', 이재은·임지선 감독의 '성적표의 김민영' 등 청춘의 삶을 저마다의 시선으로 담아낸 영화도 포함됐다.

문석 프로그래머는 "올해는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폭로하고 소외된 이들을 보듬는 작품들이 많이 출품됐다"며 "코로나19 상황의 어려움에도 영화를 제작해 보내준 모든 분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뉴스



전북예술회관, 하반기 정기대관 신청자 모집

4월 1~30일까지 이메일 접수

전북예술회관에서 2021년 하반기 정기대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모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 홈페이지(www.jct.or.kr)에서 대관 신청서와 계획서를 내려 받아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재단은 코로나19로 힘든 지역 예술인들에게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위축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북도 주수지를 문 작가 및 단체에게 대관 기본료 50%를 감면한다.

하반기 정기 대관 선정자(단체)는 7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 간 매주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7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시설에는 기스락1(95평), 기스락2(42평), 차오름1(67평), 차오름2(41평), 미리내(66평) 등 총 5개 전시실이 있다.

한편 전북예술회관에서는 예술가 및 예술단체에게 우수한 작품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자 매년 상·하반기 정기대관과 수시대관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나 경영지원부(063-230-7415)에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찾아가는 태권도 교실' 참가단체 모집

태권도진흥재단, 19일까지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장용갑)은 국민 누구나 태권도를 쉽게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1 찾아가는 태권도 교실 참가단체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지난해까지 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찾아가는 태권도 교실'을 올해부터는 노인 복지시설 어르신까지 확대한다. 청소년 보호시설과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등 전국 신청 단체 중 10곳을 선정해 오는 11월까지 수련과 체험 등 태권도를 통한 건강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태권도 지도자 파견을 비롯해 태권도복, 교육 기자재 등 '찾아가는 태권도 교실'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태권도진흥재단이 지원한다.

매주 1차례 2시간씩 총 15회 교육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태권도 교실'에서는 기본 기술과 격과 및 호신술, 겨루기 등의 태권도 교육과 권력, 밸런스, 전신 지구력과 같은 건강관리도 이루어진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와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정된 단체와 협의를 거친 후 태권도 교실을 운영할 예정으로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태권도진흥재단 또는 태권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태권도진흥재단 장용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어르신들께서도 태권도를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며 "태권도를 통한 체육활동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일상생활 등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만큼 많은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임실문화원장 이·취임식 개최

임실문화원이 지난 11일 문화원 공연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조치에 따라 총회 요건을 충족하는 최소 인원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그동안 임실문화 발굴과 임실의 역사 책자발간 등을 위해 헌신해온 최성미 문화원장의 임기가 끝나, 단독 후보로 등록한 김태진 씨가 총회 의결을 통해 새로운 문화원장으로 선출됐다.

새롭게 선출된 김태진 문화원장은 임실고등학교 교장, 임실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민주평통 임실군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심민 군수는 "그동안 임실 역사·문화를 발굴하고 발전시켜 문화원의 기틀을 다져주신 최성미 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문화원은 각종 문화 활동과 프로그램으로 우리 군민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여왔으며, 앞으로도 임실군의 문화거점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문화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역의 역사문화 자료조사 및 책자 발간, 임실의 역사 재발견, 강진의 역사문화, 임실의 돌문화 책자를 발간하였고, 임실문화대학과 문화학교를 운영하여 임실군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문화 정서 함양에 기여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판소리마당'

판소리 대중화·명맥 잇기 위해 지속 공연... 올해 100회 공연 앞뒤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1998년부터 2021년까지 이어져온 남원의 대표 판소리 공연의 맥을 잇는 '판소리마당'을 예음원에서 펼친다고 밝혔다.

판소리 공연의 정착과 대중화를 위해 국립민속국악원이 기획한 '판소리마당'은 1998년 은희진 명창의 1회 공연을 시작으로 한농선, 박송희, 남해성 명창들을 비롯해 송순섭, 박양덕, 김수연, 유영애, 조소녀 등 당대의 명창들이 출연, 젊은 명창들의 데뷔 무대에 이르기까지 명실상부 판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대표공연으로 자리하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올해 100회 공연을 앞두고 있는 '판소리마당'은 판소리의 대중화와 명맥을 잇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연하고 있으며, 판소리 매니아층 형성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올해 출연자는 지난 2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초등학생 출연자 8명, 중·고등학생 출연자 6명, 완창무대 출연자 10명을 선발하였으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고의 실력을 보유한 소리꾼들이 대거 출연을 확정해 관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일정과 출연진은 담당자(PD 정



소리판 출연자 김세미.

수임, 063-620-2328)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공연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객석 띄어 앉기로 선착순 50석 사전예약을 통해 서민 입장이 가능하고 예약(카카오톡이나 063-620-2328)은 필수다. /남원=김기두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